

'98 대홍수의 진단 및 재해극복 대책 심포지엄 행사 보고

전병호 (본 학회 학술 및 기술위원회 위원장)

정상만 (본 학회 학술 및 기술위원회 간사)

금년 여름 우리 나라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수해를 입어 그 피해 규모가 1조 2천 5백 억원에 이르렀으며 수재민도 2만 3천명에 달하였다.

이에 우리 수자원학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한국종합전시장(KOEX) 국제회의실에서 금년 홍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8 대홍수의 진단 및 재해극복 대책」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는 산·학·연 관계의 수자원 전문가와 시민 단체 등에서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등록 인원만도 395명에 달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1. 개최식

「'98 대홍수의 진단 및 재해극복 대책」심포지엄은 본 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공동 후원하여 한국종합전시장(KOEX)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전 10시에 송재우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개최선언에 이어 국민의례가 있었고, 고재웅 건국대학교 교수의 기념사, 정홍수 행정자치부 방재국장과 이왕우 건설교통부 수자원심의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2. 주제 발표 및 특별사진전

주제 발표는 공주대학교 정상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오전에는 '98 대홍수의 현황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오후에는 '98 대홍수에 대한 원인 문제와 재해극복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행사장 지하 1층에는 본 학회 홍수피해 조사단과 재해지역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수집한 「홍수피

해 사진」들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전시장을 마련하여 전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발표된 주제와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98 대홍수 기간의 강우특성 분석

• 김 승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장
집중호우 기간에 대한 주요호우의 발생현황을 소개하고, 지속기간별 강우 강도 분석과 호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98. 8월 홍수피해 현황조사

• 안상진 :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김양수 : 국립방재연구소 실장
'98 7.31~8.18 호우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상황, 인명피해, 재산피해, 시설물피해 등을 제시하였다.

3) 홍수피해 사진 설명

• 본 학회 홍수피해 조사단
본 학회 홍수피해 조사단에서 수집한 홍수피해 사진들을 수도권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수도권 지역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조영호 전무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안성산업대학교의 안태진 교수가 생동감 있는 칼라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4) '98 홍수재해 원인과 하천관리의 문제점

• 이종태 : 경기대학교 교수
이번에 발생한 홍수피해 상황을 구체적인 요인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함으로써 앞으로의 홍수피해 예방 및 격감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5) 홍수예경보 현황 및 개선 방향

• 서병하 :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우리 나라의 홍수예경보 시스템의 연혁 및 현황을 설명하고, 1998년 홍수발생 및 홍수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홍수예경보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6) 사면재해의 발생원인과 대책

- 이영남 : 현대건설기술연구소 연구위원
- 심해식 : 국방부 시설국 건설기술과
- 류지협 : 한려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
- 박영호 : 현대건설기술연구소

산사태를 유발하는 사면재해의 유발요인, 파괴형태 (mechanism), 예지기술, 대책공법 등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7) 댐운영 실적 및 효과 분석

- 김계호 : 한국수자원학회 고문, (주)유니세크 회장
- 강중수 : 한국수자원공사 댐사업본부장
- 장기환 :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처장
- 황만하 : 한국수자원공사 선임연구원

기상현황과 다목적댐 수문현황을 중심으로 수계별 다목적댐 운영과 홍수조절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8) 우리 나라 치수방재대책의 향후 추진방향

• 윤용남 :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심포지엄의 마지막 주제발표로 홍수재해의 발생현황 및 치수방재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치수방재 대책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3. 종합토론

종합토론은 인하대학교 심명필 교수의 사회로 하성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고재용 건국대학교 교수, 이길성 서울대학교 교수, 원인회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장, 방기성 행정자치부 방재과장,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순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하성규 대표는 방재형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과 함께 방재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도입과 실제 재난 발생시 대처요령과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

하였다.

고재용 교수는 중소하천을 위한 치수안전도의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물관리 대책이 치수·이수보다는 수질에 역점을 두어 진행되고 있으나 치수, 이수, 수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물관리 대책으로의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길성 교수는 홍수피해 현황조사는 치수경제성 분석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홍수예경보와 댐운영실적이 상호 연관되어 분석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해발생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를 구성하고 수해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인회 과장은 자연재해 발생 후 한두달이 지나면 망각해 버리는 현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소하천 수계 치수사업과 홍수예경보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방기성 과장은 홍수발생시 본 학회의 홍수피해 조사단의 구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도시 계획시 저류시설의 설치를 강조하였다.

끝으로, 음성직 전문위원은 수문기초자료의 중요성과 방재분야에 대한 기술자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4. 리셉션

리셉션은 한국종합전시장(KOEX) 지하 1층에서 육군사관학교 전병호 교수의 사회로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김계호 전 회장의 인사말씀을 전하면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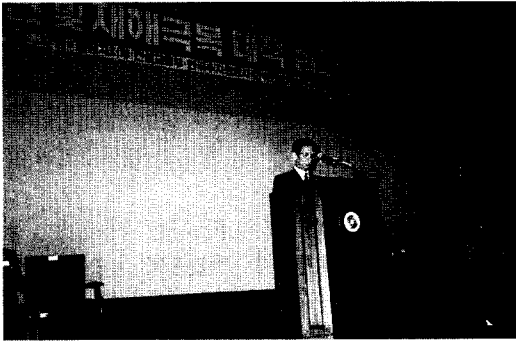
5. 맺음말

'98년 7월과 8월에 걸쳐 발생한 전국적인 자연재해에 대하여 1,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본 학회가 홍수피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홍수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심포지엄을 통하여 이를 진단하고 극복대책을 제시한 것은 시의 적절한 학회의 활동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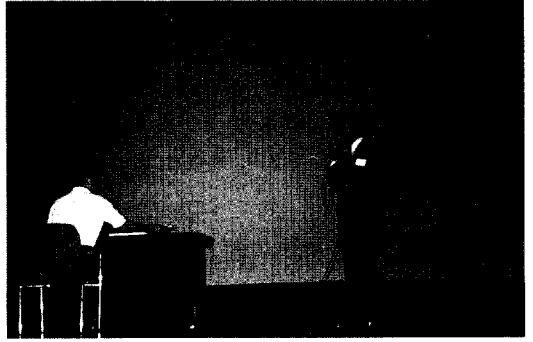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물관련 현실 문제를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보다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 일반기사

'98 대홍수의 진단 및 재해극복 대책 심포지엄 행사 보고



고재웅 건국대학교 교수 기념사(선우중호회장)대



운용남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정홍수 행자부 방재국장 축사(김정길행자부장관)대



심포지엄 참가자 경청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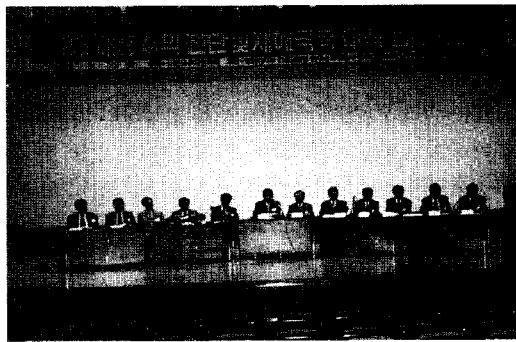
화 보
'98대홍수의
진단 및 재해극복대책
심포지엄
(1998. 9. 22)



이왕우 건교부 수자원심의관 축사(이정무건교부장관)대



사진전시회



종합토론



리셉션